

해설 : 라영환(KG패스원)

◎ 총평 ◎

2015년 9급 국가직 한국사는 출제 영역은 다음과 같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선사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태동기	근·현대
정치	1	2	2	1	1	6
경제				1	1	
사회			1	1	1	
문화		1			1	
합	1	3	3	3	4	6

전근대에서 14문항, 근·현대에서 6문항이 출제되어, 이제까지 보여준 출제 영역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시험의 경우에는 수험생들이 어려워할만한 자료를 거의 제시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로 구성되었다. 생소한 내용의 선택지가 나온 경우에도 다른 선택지의 내용이 쉽거나 매력적이지 않아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었다. 따라서 합격선은 90점 이상이라 생각된다.

6번 문제의 선택지 ③번은 2009 개정 교육과정 하에서 설정된 학습 내용이 공무원 한국사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에 한반도 내의 신석기 문화만을 다룬 것에서 벗어나 신석기 시대의 국제 교류까지 다루었다.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바뀌었는지 한 번쯤은 유념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

9번 문제의 선택지 ④번도 생소한 내용이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2013년 9급 지방직에 나온 제시문을 응용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기출문제의 내용을 떠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항상 해설자가 강조했듯이 생소한 내용 특히 특정한 사실을 언급한 선택지는 옳은 것을 묻는 질문에 정답이 되기 어렵다. 아니 거의 불가능하다. 이번 문제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해설자가 보기에 농서를 묻는 17번에서 많은 학생이 틀렸을 것이라 생각된다. 『농사직설』의 경우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세종 대에 간행되었다는 것과 우리 농법이 반영되었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어 공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역사적인 서적이 왜 역사적인 서적인가를 물어보지 않고, 단편적인 사실을 묻는 문항이 출제될 것이다. 따라서 마무리 정리에서 항상 이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1번 : 정답 ④

고려 시대의 특수 행정 구역인 향, 부곡, 소에 거주한 주민은 일반 군현민과 달리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고 있었다. 거주하는 곳도 소속 집단 내로 제한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① 무신정권 시기에 고려 전기의 신분 제도가 동요되어 이의민과 같이 하층민에서 권력층이 된 자가 많았다.

② 외거 노비는 말 그대로 밖에서(外)에서 주인과 따로 사는(居) 노비를 말한다. 외거 노비는 주인의 토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토지도 소작할 수 있어서, 노력에 따라서는 경제적으로 여유를 얻을 수 있었으며, 자신의 토지도 소유할 수 있었다. 즉 외거 노비는 비록 신분적으로는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었으나, 경제적으로는 양민 백정과 비슷하게 독립된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외거 노비 중에는 신분의 제약을 딛고 지위를 높인 사람이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재산을 늘린 사람도 있었다.

③ 고려 광종은 후주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시행하였다. 법제적으로 양인 이상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제술과와 명경과에는 주로 귀족과 향리의 자제가 응시하였다. 고려 시대에는 지방 향리의 자제 중 상당수가 과거를 통하여 중앙 관료로 진출하였다.

2번 : 정답 ④

조선 후기 경제의 변동과 신분제의 동요 속에서 사족 중심의 향촌 질서도 변화하였다. 평민과 천민 중에 재산을 모아 부농층으로 등장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양반 중에는 토지를 잃고 몰락하여 전호가 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임노동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향촌 사회 내부에서 양반이 지녔던 권위도 점차 약해졌다.

양반은 군현을 단위로 농민을 지배하기 어렵게 되자, 촌락 단위의 동약을 실시하거나 족적 결합을 강화함으로써 자기들의 지위를 지켜 나가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에 많은 동족 마을이 만들어지고, 문중을 중심으로 서원, 사우가 많이 세워졌다.

① 『소학』은 유교사회의 도덕규범 중 기본적인 필수적인 내용을 가려 뽑은 책으로, 유학교육의 입문서와 같은 구실을 하였다. 유교 윤리관을 가르칠 목적으로 사학(四學), 향교, 서원, 서당 대부분의 교육기관에서는 이를 필수 교과로 다루었다.

② 향사례(鄉射禮)와 향음주례(鄉飲酒禮)는 중국 주(周) 나라에서 어질고 재능 있는 사람을 왕에게 천거할 때 활을 쏘고, 연회를 베푼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두 의식은 유교 경전의 하나인 『주례(周禮)』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성종 초에 중앙에 진출한 김종직과 그 문인들은 향촌 질서의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로써 향사례와 향음주례의 시행을 건의하였다. 이는 향촌 사회에 덕이 높은 어르신을 앞세워 불효(不孝), 부제(不悌: 웃어른에게 공손하지 않음), 불목(不睦: 가족과 화목하지 않음), 불인(不姻: 외척과 친하지 않음), 불임훈(不任恤: 구휼을 소홀히 함)한 자, 즉 향촌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를 유교적 윤리관에 입각하여 다스리고자 한 것이다. 한편으로 사림과는 두 가지 의례를 담당할 기구로 세조 말에 혁파된 유향소 제도의 부활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③ 향촌 사회의 사림은 자신들의 명단인 향안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향회를 개최하여 자신들의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지방민을 통제하였다.

3번 : 정답 ②

공음전을 5품 이상의 관료에게 주어 세습을 허용한 것은 고려 시대 전시과에 대한 설명이다. 공음전은 자손에게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자손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위, 조카 등에게 상속되었다. 공음전은 음서제와 함께 고려사회의 귀족적 성격을 말해주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된다.

① 수신전(守信田)은 과전(科田)을 지급받은 관리가 죽은 뒤에 그 관리의 부인이 재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 부인에게 지급하였다. 휴양전(恤養田)은 과전을 받은 관료 및 그 부인이 사망한 경우 관료의 어린 자손을 보살피기 위해 관료의 과전을 자손에게 지급하였다.

③ 수신전, 휴양전, 공신전과 같은 세습 토지가 증가하여 새로 관직에 오른 관리에게 줄 토지가 부족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조 대에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이 실시되었다.

④ 과전을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하게 되자, 현직 관리들이 수조권을 남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성종 대에는 관수관급제를 실시하여 전주(수조권을 가진 관리) 대신에 지방 관청에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곡식을 거두고, 관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4번 : 정답 ④

① 황토현 전투는 (다)에 해당한다. 황토현 및 황룡촌 전투에서 승리한 동학 농민군은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② 청·일 전쟁의 발발은 (라)에 해당한다. 동학 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자 조선 정부는 청에 지원군을 요청하였다. 청나라가 조선에 출병하자, 일본은 텐진 조약을 구실로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였다. 외세의 개입으로 사태가 악화될 것을 우려한 동학 농민군은 조선 정부와 전주화약을 맺고 해산하였다. 조선 정부는 교정청이라는 개혁 기구를 설치하고 청과 일본에 철군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은 조선에서 청의 세력을 몰아내고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경복궁을 무단으로 점령하였다. 청이 강력하게 항의하자 일본군은 아산만에서 청의 함대를 기습 공격하여 청나라와 전쟁을 벌였다(청·일 전쟁).

③ 남·북접군의 논산 집결은 (라)에 해당한다.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은 김홍집 내각을 앞세워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기 시작하였다. 일본군이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남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삼례에서 농민군 4,000여 명이 집결하여 제2차 농민 봉기를 일으켰다. 이때의 농민 봉기는 1차 봉기 때와는 달리 반침략, 항일 구국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농민군은 논산에서 남접과 북접이 합세하여 북상하였는데,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관군의 연합 부대와 대치하였다. 이 전투에서 1주일간 50여 회의 공방전을 벌였으나 우세한 무기를 가진 일본군에게 크게 패하였다.

5번 : 정답 ②

지증왕(500~514)은 재위 기간이 짧지만, 지배자의 칭호를 마립간에서 왕으로 바꾸고, 정치 제도를 정비하여 국호를 신라로 정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농업생산력의 발전에 토대를 둔 것이었다. 그는 502년 순장(殉葬)을 금지하는 법령을 내리고, 주군(州郡)에 명하여 농업을 권장하도록 하였으며, 우경(牛耕)을 장려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 조치는 농업생산력 증대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증왕 3년(서기 502) 봄 2월, 명령을 내려 순장(殉葬)을 금하였다. 전에는 국왕이 죽으면 남녀 각 다섯 명씩을 순장했는데, 이때에 이르러 금하게 된 것이다. 『삼국사기』

6번 : 정답 ③

제시된 내용을 통해 밀줄 친 ‘이 시대’가 ‘신석기’임을 알 수 있다. 신석기 시대에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부족한 물건들을 이웃 집단과 교환하였다. 만주와 한반도의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가까운 지역뿐만 아니라 중국, 연해주, 일본 열도까지 교류 지역을 확대하였다.

남해안 여러 유적에서 출토되는 일본산 흑요석과 조몬 토기 등은 그러한 교환의 증거로 언급되고 있다. 경남 비봉리 유적에서는 통나무배가 발굴되어 한반도와 일본 열도가 해상으로 교류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화산암의 일종인 흑요석은 원산지마다 구성 성분이 달라서 성분 분석을 통해 문화 교류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한반도의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발견된 흑요석은 백두산과 일본 규슈 지역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남해안의 조개더미 유적에서 발견된 조몬 토기는 신석기 시대 한반도와 일본 열도 간의 교류를 보여 주고 있다.

① 청동기 시대에 대한 설명이다.

② · ④ 청동기 시대 이후에 해당된다.

7번 : 정답 ③

정국이 급격하게 전환되는 환국정치는 숙종 대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현종 때까지는 서인이 우세한 가운데 남인과 연합하여 공존하였으나, 효종의 왕위계승과 관련하여 두 차례의 예송이 일어나면서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 극심해졌다. 숙종 때 집권한 남인은 서인의 관직 진출을 허용하여 남인의 우세 속에 서인이 공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숙종은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당파의 공존 방식 대신 봉당을 자주 교체하였다. 숙종 초에 집권한 남인은 북벌론을 내세워 군사 훈련과 군비확장에 노력하였다. 서인은 남인 영수 허적이 역모를 꾸몄다고 고발하여 허적과 윤휴를 정계에서 제거하였다(경신환국).

서인은 남인을 배척하는 과정에서 강경파인 노론과 온건파인 소론으로 갈라졌다. 노론은 송시열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대의명분을 존중하고 민생 안정을 강조하였지만, 소론은 윤증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실리를 중시하고 적극적인 북방 개척을 주장하였다.

서인은 희빈 장씨 소생의 왕자를 세자로 책봉하는 것에 반대하다 정권에서 밀려났다. 이때 송시열, 김수항 등이 처형당하였다(기사환국). 장희빈이 인현 왕후를 저주했다는 죄목으로 사약을 받게 되고, 인현 왕후가 다시 왕후의 자리를 되찾게 되면서 서인이 다시 권력을 잡게 되었다(갑술환국).

① 동인은 이황과 조식 · 서경덕의 학문을 계승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서인은 이이와 성혼의 문인이 가담하여 형성되었다.

② 삼사(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의 언론은 고관은 물론이고 왕이라도 함부로 막을 수 없었고, 이를 위한 여러 규정이 관행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와 같은 3사의 기능 강화는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④ 조선은 권력의 집중과 부정을 막기 위하여 상피제를 마련하였고,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품 이하 관리의 등용에는 서경을 거치도록 하였다. 아울러 고관이 하급 관리의 근무 성적을 평가하여 승진 또는 좌천의 자료로 삼았다. 이로써 조선은 합리적인 인사 행정을 위한 제도가 갖추어져 관료적 성격이 더욱 강해졌다.

8번 : 정답 ③

제시문은 최승로가 고려 성종에게 올린 ‘시무 28조’의 일부이다. 최승로는 ‘시무 28조’에서 지방관 파견 이외에도 서북 지방의 수비 강화, 불교 폐단 시정, 유교적 신분 질서 확립, 왕권과 신권의 조화, 중국 제도의 선별적 수용 등을 강조하였다.

성종은 전국의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으며, 지방의 중소 호족을 향리로 편입하여 통제하는 향리 제도를 마련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하였다. 또, 유학 교육의 진흥을 위해 국자감을 정비하고, 지방에 유학을 교육하는 경학박사와 의료를 담당하는 의학박사를 파견하였으며, 과거제를 정비하고 과거 출신자들을 우대하여 유학에 조예가 깊은 인재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유도하였다.

① 정종은 개경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서경으로 천도를 계획하였으나 신하들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인종은 묘청, 정지상 등이 주장한 서경길지설(西京吉地說)에 공감해 서경의 임원역(林原驛)에 대화궐(大華闕)을 짓고 수시로 서경을 순행하였다.

② 현종에 대한 설명이다.

④ 태조는 훈요 10조에 연등회와 팔관회를 장려하라는 내용을 남겼다.

9번 : 정답 ①

㉠은 ‘원효’, ㉡은 ‘의상’이다. 원효는 아미타 신앙을 자신이 직접 전도하며 불교 대중화의 길을 열었다.

② 원효는 요석 공주와의 사이에서 설총이 태어난 이후 스스로 소성거사(小性居士), 복성거사(卜性居士)라고 칭하며 서민 속으로 들어가 불교의 대중화에 힘썼다. 광대들이 가지고 노는 큰 박으로 도구를 만들어 이를 ‘무애(無碍)’라 하였다. 무애(無碍)는 ‘일체의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한 길로 삶과 죽음을 넘어설 수 있다(一切無碍人 一道出生死)’는 화엄경(華嚴經)의 구절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이를 가지고 각지를 떠돌며 불교의 교리를 쉬운 노래로 만들어 전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본래의 마음을 깨달으면 정토(淨土)를 이룰 수 있으며, 입으로 부처의 이름을 외우고 귀로 부처의 가르침을 들으면 성불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이러한 원효의 활동으로 신라의 백성들은 모두 부처의 이름을 알고 ‘나무아미타불’의 염불을 외우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③ 의상은 아미타 신앙과 함께 현세에서 고난을 구제받고자 하는 관음 신앙을 이끌었다. 이는 의상이 아미타불(阿彌陀佛)을 본존불로 하여 부석사를 창건한 사례 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

④ 생소한 사건, 명칭 등으로 수험생에게 혼란을 주는 공무원 한국사 시험의 전형을 보여준다. 2013년도 지방직 9급 문제를 풀어본 수험생이라 할지라도 그 제시문의 내용과 이 선택지를 연결지어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수업에서 몇 번이나 강조했다. 정답은 항상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의상의 관음 신앙은 백성들이 현생에서 겪는 고난을 구제해주는 사상이다. 이를 통

해 ④번과 같은 사건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참고로 이 선택지는 다음 사료를 보고 낸 것이다.

문무왕 21(681) 6월, 임금이 왕성을 새로 짓고자 하여 승려 의상에게 물어보니, 의상이 대답하였다. “비록 들판의 초가집에 살아도 바른 도를 행하면 곧 복스러운 업이 길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비록 사람들을 힘들게 하여 성을 만들지라도 역시 이익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에 임금이 공사를 그만두었다. 『삼국사기』

10번 : 정답 ③

최익현의 제자 임병찬이 이끌었던 독립 의군부는 고종의 밀지를 받아 조직된 비밀 결사로 조선 왕실을 복원하려는 복벽주의를 지향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의병을 일으키려 하였으나, 조선 총독에게 국권반환 요구서를 보내려고 계획하던 중 발각되어 조직이 해체되었다. 박상진과 김좌진이 이끌었던 대한 광복회는 1910년대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항일 단체였다. 독립 의군부와는 달리 공화정체를 지향한 대한 광복회는 군대식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 이들은 친일파를 처단하고 만주에 무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군자금을 모았다. 하지만 많은 단체가 일제가 지배하고 있는 국내에서는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외로 활동 무대를 옮겼다.

- ① 공화국 건설을 목표로 조직된 단체는 대한광복회이다. 독립의군부는 조선 왕실을 복원하려는 복벽주의(復辟主義)를 내세웠다.
- ② 독립의군부에 대한 설명이다.
- ④ 독립의군부는 임병찬을, 대한광복회는 박상진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11번 : 정답 ③

통일 신라는 5소경에 ‘사신(仕臣)’을 파견하여 행정을 관할하도록 하였다. 도독(都督)은 9주의 장관을 말한다.

- ① 신문왕은 군사, 행정상의 요지에 5소경을 두어 수도인 경주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문제를 보완하고,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였다. 또한 전국을 9주로 나누었다.
- ② 문무왕은 지방 관리의 감찰을 위해 외사정을 두었다.
- ④ 군, 현 아래의 촌은 삼국 시대와 마찬가지로 통일 신라 시대에도 토착 세력인 촌주가 다스렸다. 촌과 별도로 특수 행정 구역인 향과 부곡이 있었다.

12번 : 정답 ①

광학보(廣學寶)는 고려시대에 불법(佛法)을 배우는 사람들을 위하여 설치한 장학 재단을 말한다. 946년에 정종이 여러 큰 절에 시납(施納)된 곡식 7만 섬을 기초로 설치하였다.

광학보를 모르더라도 나머지 선택지의 내용이 쉬워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전근대 시기에 농민을 위한 과거 응시 기금을 만들었다는 것은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의심을 해볼 수 있다.

- ② 다음과 같은 기사가 이에 해당된다.

진전(황폐해진 경작지)을 개간하여 경작하는 자는, 사전(개인 소유지)의 경우 첫해에는 수확의 전부를 가지고, 2년째부터 경작지의 주인과 수확량을 반씩 나눈다. 공전(국가 소유지)의 경우에는 3년까지 수확의 전부를 가지고, 4년째부터 법에 따라 조(租)를 바친다. 『고려사』

- ③ 고려 성종은 수해(水害), 한해(旱害), 충해(蟲害), 상해(霜害) 등과 같은 자연 재해로 토지의 피해가 4할 이상일 경우에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주는 법을 마련하였다.
- ④ 고려 정부는 농번기에 농민을 각종 역에 동원시키는 것을 금지시켜 농민이 농업에 전념하도록 배려하였다.

13번 : 정답 ④

제시된 자료는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을 보여준다. 조선 후기에 널리 유통된 동전은 ‘상평통보’이다. 삼한통보(三韓通寶)는 고려 시대에 주조되었다.

조선 후기에 들어 포구가 새로운 상업 중심지가 되었다. 포구의 상거래는 장시보다 규모가 훨씬 컸다. 종래의 포구는 세곡이나 소작료를 운송하는 기지의 역할을 했으나, 18세기에 이르러 강경포, 원산포 등이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포구를 거점으로 선상, 객주, 여각 등이 활발한 상행위를 하였다.

선상은 선박을 이용해서 각 지방의 물품을 구입해 와 포구에서 처분하였는데, 운송업에 종사하다가 거상으로 성장한 경강 상인이 대표적인 선상이었다. 그들은 한강을 근거지로 하여 주로 서남 연해안을 오가며 미곡, 소금, 어물 등을 거래하였다.

한편, 객주나 여각은 각 지방의 선상이 물화를 싣고 포구에 들어오면 그 상품의 매매를 중개하고, 부수적으로 운송, 보관, 숙박, 금융 등의 영업도 하였다. 객주와 여각은 지방의 큰 장시에도 있었다.

14번 : 정답 ④

대한 제국은 황제 직속으로 법규교정소라는 특별 입법 기구를 만들어 대한민국 국제를 제정하였다(1899). 대한민국 국제에서 대한 제국은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독립 제국이고, 황제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전제 군주 국가임을 분명히 하였다.

대한국 국제 (일부)

제1조 대한 제국은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독립 제국이다.

제2조 대한 제국의 정치는 만세불변의 전제 정치이다.

제3조 대한 제국 대왕제는 무한한 군권(군주권)을 누린다.

제5조 대한 제국 대왕제는 육해군을 통솔하고 군대의 편제를 정하며 계엄을 명한다.

제6조 대한 제국 대왕제는 법률을 제정하여 그 반포와 집행을 명하고, 대사와 특사, 감형, 복권을 명한다.

제9조 대한 제국 대왕제는 각 조약의 체결 국가에 사신을 파견하고, 선전, 강화 및 제반 조약을 체결한다.

- ① 1884년 갑신정변 당시 발표된 14개조 정강의 일부이다.
- ② 1895년 흥범 14조에 해당한다.
- ③ 1898년 관민공동회에서 결의한 헌의 6조의 내용이다.

15번 : 정답 ①

6·25전쟁 개전 초기 북한군의 공격에 밀려 대전을 거쳐 대구로 내려와 있던 대한민국 정부는 다시 부산으로 이동하였다. 국군은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의 지휘 아래 낙동강 전선을 마지막 방어선으로 삼고 반격을 시도하였다. 1950년 9월 15일 유엔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

하면서 전세가 역전되었다. 국군과 유엔군은 9월 28일에 서울을 수복하였다.

② (나) 시기에 해당된다.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수복한 뒤에 11월에는 두만강 일대까지 진격하였다. 하지만 중공군의 참전으로 후퇴를 하고 서울까지 다시 빼앗겼다.

③ (가) 시기 이전에 일어난 사실이다. 1950년 1월 미국 국무 장관 애치슨은 중국과 소련의 세력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극동 방위선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 한반도와 타이완이 제외되었다. 이러한 애치슨 선언은 미국이 한반도의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④ (가) 시기에 해당한다. 한국 시간으로 6월 26일 새벽 4시에 소집된 안전 보장 이사회는 미국의 제안에 따라 북한군의 즉각적인 전투 행위 중지 및 38선 이북으로의 철수를 요청하는 결의안을 가결하였다. 이 결의를 북한이 무시하자,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미국이 제출한 북한군에 대한 무력 제재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유엔 창립 이후 최초로 유엔군 파견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6번 : 정답 ②

1907년 고종의 강제 퇴위와 대한제국 군대 해산 직후인 1908년 13도 연합 의병 부대가 서울 진공작전을 시도하였다. 1909년에는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ㄴ, ㄷ 1905년 을사늑약 체결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사건으로 제시된 사건 이전에 해당된다.

17번 : 정답 ②

『농사직설』은 조선 세종 때의 문신인 정초, 변효문 등이 왕명에 의하여 편찬한 농서이다. 이 책은 당시 농민의 실제 경험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씨앗의 저장법, 토질의 개량법, 모내기법 등을 소개하였다.

① 『농가집성』은 1655년(효종 6)에 신숙이 간행한 농서이다. 『농가집성』은 『농사직설』, 『금양잡록』, 『사시찬요초』 등의 내용을 당시 실정에 맞게 고치고 보충하여 편찬한 책이다. 이암은 고려 후기에 원으로부터 『농상집요』를 들여왔다.

③ 『산림경제』는 조선 숙종 때 홍만선이 농업과 일상생활에 관한 광범위한 사항을 기술한 책이다. 박세당은 『색경』이라는 농서를 저술하였다.

④ 『과농소초』는 박지원이 저술한 농서이다. 박지원은 이 책에서 농법은 물론이고 수리법의 개량, 토지 제도 개혁에 대해 서술하였다.

18번 : 정답 ④

제시된 자료는 균역법의 실시에 따른 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지시하는 것이다. 즉 영조 대의 정치 변화를 묻는 문제이다.

영조는 왕과 신하 사이의 의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면, 봉당을 없애자는 논리에 동의하는 탕평파를 중심으로 정국을 운영하였다.

① 숙종 때에 이르러 정국을 주도하는 봉당과 견제하는 봉당이 서로 교체됨으로써 정국이 급격하게 전환하는 환국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특정 봉당이 정권을 독점하는 일당 전제화의 추세가 대두되었다. 처음에는 서인과 남인이 격렬하게 대립하였으며, 나중에는 서인에서 갈라져 나온 노론과 소론이 치열하게 경쟁하였다.

이러한 환국을 왕이 직접 나서서 주도함에 따라, 외척이나 종실 등 왕과 직결된 집단의 정치적 비중이 커졌다. 정치 권력은 점차 고위 관원에게 집중되었으며, 언론 기관이나 재야 사족

의 정치 참여가 점차 어려워짐에 따라 봉당 정치의 기반도 무너졌다.

② 현종 때에 효종의 왕위 계승에 대한 정통성과 관련하여 두 차례의 예송이 발생하면서 서인과 남인 사이에 대립이 격화되었다.

③ 순조·현종·철종 집권기에는 안동 김씨·풍양 조씨와 같은 소수의 가문이 정치를 독점하는 세도 정치가 나타났다. 세도 정치기에는 봉당은 물론, 탕평파와 반탕평파 같은 정치 집단 사이의 대립적인 구도도 없어지고, 중앙 정치를 주도하던 정치 집단은 소수의 가문 출신으로 좁아지면서 그 기반이 축소되었다.

권력 구조에서도 고위직만 정치적 기능을 발휘하고, 그 아래의 관리는 언론 활동 같은 정치적 기능을 거의 잃은 채 행정 실무만 맡게 되었다. 비변사가 핵심적인 정치 기구로 자리잡았으며, 유력한 가문 출신의 몇몇이 실제 권력을 행사하였다.

19번 : 정답 ①

역(譯, 통역), 의(醫, 의료인)에 종사했다는 구절에서 ‘우리’가 ‘기술직 종인’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서얼의 신분 상승에 자극을 받아 대규모의 소청 운동을 일으켰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신분 상승에는 실패하였지만 종인은 새로운 사회 수립에 이바지하였다. 특히 중국을 왕래하면서 무역 활동에도 참여하여 경제력을 갖춘 역관은 서학을 비롯한 외래문화를 수용하여 개화사상의 성립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한편, 종인들은 시를 짓고 즐기기 위한 모임인 시사(詩社)를 조직하여 문예 활동과 활발한 저술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기도 하였다.

② 1894년 갑오개혁으로 백정은 법적으로 해방되었지만,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은 여전하였다. 백정의 자녀는 공립학교에 입학할 수 없었고, 사립학교에 입학하더라도 신분이 밝혀지면 퇴학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백정들은 신분 차별과 멸시를 타파하기 위해 1923년 경남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를 조직하여 형평 운동을 전개하였다.

③ 조선 후기 부농층에 대한 설명이다. 경제력을 갖춘 부농층은 수령을 중심으로 한 관권과 결탁하여 향안에 이름을 올리려는가 하면, 향회를 장악하여 향촌 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우려 하였다.

④ 사림에 대한 설명이다. 유향소는 조선 시대 지방 군현의 수령을 보좌하던 자문기관으로 수령의 다음가는 관청이라 하여 이아(貳衙)라고도 하였다. 조선 초기에 설치와 폐지를 반복하다가 성종 집권기부터 꾸준히 유지되었다.

20번 : 정답 ③

(가) 1941년 11월, (나) 1945년 10월, (라) 1948년 7월의 일이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1945년 광복과 동시에 결성되었으므로 (가)와 (나) 사이에 해당된다.

① 여운형과 김규식은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되면서 임시정부 수립이 좌절될 위기를 맞게 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좌우 합작을 모색하였다. 1946년 7월에 김규식과 여운형의 주도로 좌우 합작 위원회가 구성되고, 10월에 좌우 합작 7원칙이 발표되면서 좌우 합작 운동은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 원칙은 이견이 심했던 토지 개혁 문제를 중도적 입장에서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반공주의를 내세워 단독 정부 노선을 취했던 한국 민주당과 토지 개혁과 친일파 처리의 급진적 해결을 추구하였던 남조선 노동당은 좌우 합작 7원칙에 반대하였다.

②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세력에 의해 단독 정부 수립의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자, 김구는 1948년 2월 10일 아래의 글을 발표하여, 남북회담을 제안하였다.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일부)

한국이 있어야 한국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이 있어야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또 무슨 단체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 마음속의 38도선이 무너지고야 땅 위의 38도선도 철폐될 수 있다. ... 지금 나의 유일한 염원은 3천만 동포와 손을 잡고 통일된 조국의 달성을 위하여 공동 분투하는 것뿐이다. 이 욕신을 조국이 원한다면 당장에라도 제단에 바치겠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선에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④ 1948년 5월 10일, 북한 지역에 배정된 100석의 국회의원 수를 남겨둔 채 남한 지역에 배정된 200석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감시 아래 총선거가 시행되었다. 김구와 김규식 등 남북 협상파와 좌익 세력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유권자의 95.5%가 투표에 참가하여 제주도 2개 선거구를 제외한 198명의 국회의원 선출되고 이에 따라 제헌 국회가 구성되었다. 제헌 국회는 이승만의 독립 축성 국민회와 한국 민주당 소속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아직 정당 정치가 확립되지 않아 무소속 의원이 가장 많았다.